



모바일로도 동행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동행

동행 플러스

일본 구마모토 선교지 탐방 - 광릉규 외

신앙의 유산

은혜의 동행 - 문희교 은퇴장로

소식 & 나눔

종교개혁 그랜드투어 - 송경란, 양양덕, 이진표



PASSION

영은, 열정을 더하다

2026 BASIC+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순간에도…”

앞날 자욱하고

세상 모든 길 가로막혀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순간에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십니다.

주님의 손을 잡기만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이사야 41:10)

사진 | 함영선 · 글 | 서현이 기자



사키쓰 스와 신사 뒤편 언덕 위,
'채플의 종'을 울리며 복음의 평화 기원

월간 동행 영은영상홍보부

창간일 1986년 4월 27일

발행일 2026년 9월 6일

발행처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61 영은교회
02-2676-7171~2

발행인 이승구 목사

지도목사 최광주 목사

편집인 최윤호 장로

편집차장 김명희 권사 김창원 안수집사

편집 김경원B 김명희 김창원 김한옥
윤정림 이숙경

기자 김명희 김재원 나영 서현이
송경란 윤정림 이숙경 이종은

사진기자 허영준

디자인 인스피릿디자인 김경미

월간 동행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삶과
간증을 나누는 교회 소식지입니다.

영은교회 창립: 주후 1960. 04. 24.

월간『동행』과 웹진 동행

월간『동행』과 교회의 또 다른 소식을
교회 홈페이지와 YES앱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02 그림이 있는 풍경 |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순간에도... 서현이 집사

04 생명의 말씀 | 끝이라 생각할 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 이승구 목사

08 그리스도인의 향기 | 아이들을 품은 시간, 나를 키운 믿음 김선화 집사

10 동행플러스 | 일본 구마모토 선교지 탐방 곽륜규, 은민규, 황주영 청년

13 구역식탁 | 내가 복이 많아요 최동임 은퇴권사

15 신앙의 유산 | 영은교회와 함께 걸어온 은혜의 동행 문희교 은퇴장로

19 소식&나눔 | 종교개혁 그랜드투어 송경란 권사, 양양덕 은퇴권사, 이진표 청년

|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류석현 교사 외 6명

| 중등부 수련회 정예준 학생

| 고등부 수련회 박민서 학생

| 더누림 수련회 홍진혁 성도

| 천안동부교회 아웃리치 김하민 청년

| 집수리 봉사단 박선영 성도

| 유스비전 31기 주바라기의 유럽 여행 이야기 김해지 청년 외

33 청년마당 | 청년 1부 수련회 이채연 청년

| 청년 2부 수련회 이경준 청년

35 선교현장 | 품 속에 보이는 하나님 구용회 선교사

37 슬기로운 교회생활 | 예배로서의 결혼예식 이찬양 목사

38 생활노트 | 초등교사의 학교교육 이야기 최혜진 집사

40 뒷표지 | 2026년 2학기 장년신앙교육

성도님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영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거나 알고 싶은 소식을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편집
회의 검토 후 월간 동행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동행 이메일 yemagazine@naver.com]

끝이라 생각할 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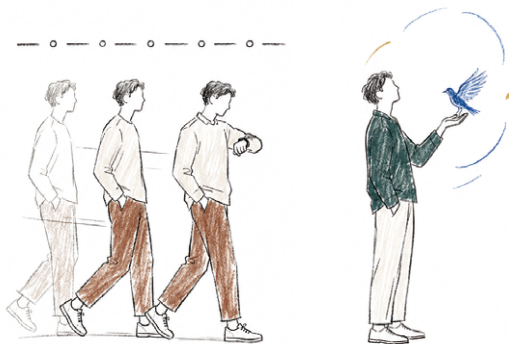
[사 43:18-19]



이승구 담임목사

“내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내 인생에 다시 기회가 올까?” 라는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만 늦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은 다릅니다. 성경에는 시간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개입니다. 먼저 크로노스(Chronos)는 하루, 한 달, 한 해가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 인생의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카이로스(Kairos)라는 시간도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때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얼마나 흘렀느냐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 언제 임하느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이는 80세입니다. 세상의 시간으로 보면 80세는 ‘이제는 내려놓을 때’라고 생각할 나이입니다. 애굽에서 실패한 그는 광야로 도망쳤고,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아왔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면 모세의 인생은 이미 너무 많이 지나가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설교 영상보기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과거를 보며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을 보시며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끝난 것 같았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 사람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으니, 우리 민족의 역사는 끝났다’라는 깊은 절망과 자책이 가득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그들의 현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과거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뜻 다시 시작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주저앉은 이유는 바로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쓰라린 실패, 사랑하는 이와 이별,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 돌이킬 수 없는 실수 등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붙잡고 현재의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과거의 실패를 ‘내 정체성’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내게 실패한 경험이 있다’가 아니라 ‘나는 실패자다’, ‘내가 한 번 넘어졌다’가 아니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짓된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많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로 번역된 단어의 구체적 의미는 ‘과거의 사건에 마음을 빼앗겨 현재를 지배당하는 상태’입니다. **과거의 실패가 오늘의 나를 결정하게 하지 말고, 과거의 상처가 앞으로의 삶을 가로막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자인 있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님이 올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절망한 베드로는 옛날의 자리, 갈릴리 바다로 돌아갑니다. 아마도 그는 ‘나는 끝났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가 베드로의 미래를 결정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새벽

이 밝아올 무렵,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베드로를 맞이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세 번이나 부인했는지 추궁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의 실패를 모른 척하시거나 과거를 없었던 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의 상처가 있는 자리까지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셨고, 과거의 실패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를 정리한다는 것은 과거에 더 이상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는 실패로 인정하되,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게 하지는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실패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회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물이 없는 곳에 강을 내신다(사 43:19)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신

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는 목적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한다’라는 말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좋은 기회가 찾아오거나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되듯 한순간에 인생이 달라지는 극적인 변화만이 새로운 시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은 평범한 오늘 속에서 조용히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는 사람은 기회가 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자신을 준비해 온 사람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적을 맞이할 사람의 삶에는 이미 오랜 시간의 준비가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그 순간만 보았습니다. “저 어린 소년이 어떻게 저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러나 다윗에게

는 아무도 보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묵묵히 양떼를 지키던 시간,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가려 할 때 그것을 쫓아가 양을 건져낸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믿음은 그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낸 시간이 그날의 믿음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기다리지만 말고, 기적을 맞이할 오늘을 준비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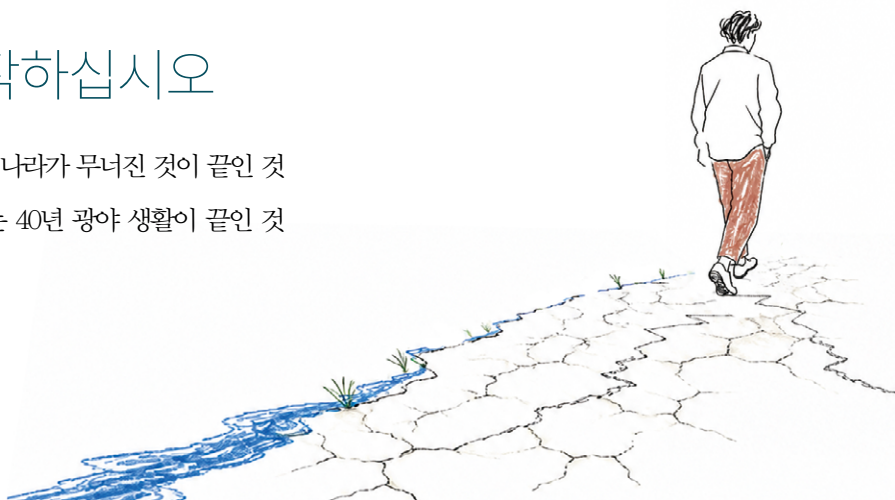
오늘의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고, 오늘의 기도를 성실하게 하고, 오늘의 일을 성실하게 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무너진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는 정리하고, 오늘은 성실하게 살아내십시오.

끝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품은 시간, 나를 키운 믿음



김선화 집사
(중등부 교사)

30년 전 일본으로 어학연수 갔을 때 전도를 받아 한인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순장으로 섬기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지금도 첫 예배에서 들었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마음에 남아 있다.

그 말씀을 들으며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을 다시 돌아봤다. 사람들에게 느꼈던 미움과 실망,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이 생겼다. 일어나 가족,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조금씩 바뀌었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살아갈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한국으로 돌아와 신앙생활을 이어가던 중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 영은교회로 옮겼다. 처음 1년 정도는 예배만 드렸지만, 다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 13년 전 중

등부 교사를 시작했다. 평소에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 교사의 역할이 낯설지 않았고, 중학생은 충분히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했기에 중등부를 선택했다.

처음에는 의욕이 너무 앞섰다.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도 많았고 이것저것 시키고 싶은 것도 많았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생각만큼 따라주지 않으면 속상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아이들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마음이 컸던 것 같다.

13년이 지난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며,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만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다. 무엇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보다 예배와 기도를 얼마나 진심으로 드리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친구를 보면 마음이 안타깝고, 그 아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기를 기도한다. 또한 교회 안에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고 찬양팀이나 찬양대 활동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신앙이 자라기를 바란다.

중등부 교사를 오래 하다 보니 내가 아이들에게 주는 것보다 아이들을 통해 받는 은혜가 더 많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위십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중등부를 졸업한 아이들이 자라 다시 수련회에서 봉사하고, 위십팀의 리더가 되어 후배들

섬기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낀다.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 안에서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것도 배워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중등부 아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너희는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 예배드리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선생님은 기도하고 있어.”

돌이켜보면 13년 동안의 중등부 교사 생활은 아이들을 위한 시간이면서 동시에 나를 붙들어 준 시간이기도 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어느새 ‘내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됐다. 내가 아이들을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을 통해 나를 붙드시고 내 믿음도 함께 자라게 하셨다.

그래서 중등부 교사의 삶이 내게 참 은혜롭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쓰임 받는 삶을 살고 싶다면 중등부 교사의 자리에 한 번 서보시기를 권하고 싶다. 아이들이 자라는 기쁨과 함께 ‘나의 믿음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전국학생찬양경연대회 위십 부문 대상을 받은 영은 중등부 위십팀
(2026. 8. 22.)

[일본 구마모토 선교지 탐방]

복음의 흔적을 따라서

곽룡규 (청년1부)



사키쓰 스와 신사 뒤편 언덕 위에 있는 '채플의 종을 울리며 복음의 평화 기원'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청년부 영은문화아카데미에서 진행한 일본 구마모토 선교지 탐방 블록세미나에 참여했다. 일본을 방문하기에 앞서 8주 동안 책과 강의를 통해 일본 교회사를 공부했다. 이전까지 나는 일본을 단순히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땅'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일본 교회의 역사를 배우며 수많은 선교사의 헌신 그리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성도들의 삶을 접하게 됐다. 또한 오랜 시간 이어진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본 땅 가운데 꾸준히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책으로만 배우던 역사를 직접 현장에서 마주했을 때의 감동은 더욱 특별했다. 구마모토에 있는 기독교 박물관과 교회 유적지를 둘러보며 당시 신앙인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상상해볼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일본의 영적인 현실도 느낄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교회의 십자가를 찾기 어려웠고, 길 곳곳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의 흔적을 쉽게 마주칠 수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일본 땅을 향한 안타까움과 긍휼한 마음이 들었다.

이번 탐방을 통해 내 신앙의 시야가 한층 넓어졌다. 그동안 말씀과 설교, 기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복음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전파되었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왔는지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속에만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와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져 왔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이번 일본 교회 역사 탐방은 내게 역사와 신앙 그리고 선교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한 귀한 시간이었다.

[일본 구마모토 선교지 탐방]

숨은 신앙에서 살아내는 신앙으로

은민규 (청년2부)

일본 구마모토에서 진행된 영은문화아카데미 블록세미나를 통해 이웃 나라 일본의 기독교 선교 역사에 대해 깊이 배울 수 있었다. 약 두 달간의 사전 독서와 강의를 통해 배운 일본 기독교의 역사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번 세미나를 관통하는 주제는 ‘가쿠레 키리시탄(隠れキリシタン)’, 즉 ‘숨은 그리스도인’이었다. 탐방 기간, 오랜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숨겨야 했던 일본 그리스도인들의 흔적을 따라가며, 공동체와 단절된 신앙이 시간이 흐르면서 역설적으로 본래의 모습과 조금씩 멀어져 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은 개인의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고백하고 배우며 나눌 때 온전히 이어질 수 있음을 깊이 깨달았다.**

내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도 돌아볼 수 있었다. 모든 사회초년생과 같이 나 역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 때로는 조심스럽고 부담스



아마쿠사 시로 박물관(은민규: 오른쪽 네 번째)

러웠다. 그러나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신앙을 드러낸다는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무엇이 나의 기준인지를 분명히 하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얻은 하나의 ‘거룩한 부담감’을 품고, 앞으로 겸손하되 위축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직장과 사회 속 작은 선택과 관계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지키며,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일본 구마모토 선교지 탐방]

기존 비전트립과 다른 매력이었던 구마모토 선교지 탐방

황주영 (청년2부)



구마모토현의 마스코트 쿠마몬과 함께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영은교회 청년부 16명이 일본 구마모토현 일대로 교회 역사 탐방을 다녀왔다. 이번 탐방은 약 4개월간 진행된 영은문화아카데미 상반기 강좌 「아시아 기독교사: 일본」과 연계해 이루어졌다. 청년들은 나카무라 사토시의 『일본 기독교 선교의 역사』를 함께 공부한 뒤 4박 5일간 구마모토와 아마쿠사 지역을 탐방하며 일본 개신교의 발상지와 ‘잠복 기리시탄’ 관련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둘러보았다. 책으로 배운 일본 교회사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며 동아시아 기독교의 역사와 신앙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마음에 가장 깊이 남은 것은 잠복 기리시탄의

신앙이었다.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숨어 예배하며 신앙을 이어 간 사람들의 삶을 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삶 속에서 담대하게 드러내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그들의 변함없던 믿음은 나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탐방은 청년부 기존 선교 프로그램(비전트립)과는 다른 매력이 있었다. 사역 준비가 중시된 선교와 달랐다. 하나의 주제를 함께 배우고 토론한 뒤 현장을 직접 탐방하며 미리 공부한 내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역사와 신앙을 더욱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매일 소그룹을 새롭게 구성해 다양한 청년들과 교제하며 서로의 생각과 신앙을 나눌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에서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새 신자의 마음으로 영은교회에 처음 발을 디딘 지 어느덧 4년이다. 그동안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이번 **일본 교회 역사 탐방은 배우는 즐거움과 신앙의 성찰 그리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던 가장 뜻깊은 프로그램으로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내가 복이 많아요



최동임 은퇴권사
(203구역)

신앙생활의 첫 시작이 영은교회였다

최동임 은퇴권사님은 1946년 전북 고창군에서 태어났다. 30대까지 교회에 가본 적 없던 최 권사님은 1985년 9월 22일 영은교회에 첫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는 당시 故 송리복 장로(당시 권사)가 선물로 준 성경책에 날짜가 적혀 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최 권사님 집에 세 들어 살던 오오숙 권사(당시 집사) 집에서 구역예배가 있었는데 송 장로님이 마당에서 어슬렁거리던 최 권사님을 발견하고는 구역예배 자리로 불러들였다. 송 장로님은 이틀 뒤 주일에 권사님을 차에 태워 교회로 인도했다.

권사님을 교회로 인도한 송리복 장로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최 권사님의 가슴 속에서 커다란 것이 ‘쿵’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멈출 줄 몰랐다. 그렇게 많이 온 건 난생처음이었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많이 온 것 같다. “아! 장로님이 날 위해 기도를 많이 해 주셨구나!”

동네 이웃과 나눔 그리고 교회 봉사

당시 송리복 장로님이 반장 겸 구역장을 맡았고, 이후 심은옥, 김명화 권사, 김광수 장로 그리고 최동임 권사에게로 구역장 자리가 이어졌다. 권사님은 교회에 다니기 이전부터 이웃과의 나눔을 기쁨으로 실천하고 있었다. 틈만 나면 골목에 모여서 돗자리를 깔고 권사님이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서로 친해졌다. 그런 이유로 평신도 때 9명을 전도했다. 김광수 장로님이 구역장일 때는 구역예배와 큐티(QT)를 병행해서 힘들기도 했으나 큐티 마지막 수업 때는 혼자서 음식을 준비했다. 허남기 목사님과 교회 식구들, 골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냉면 잔치를 벌였다. 권사님은 음식 솜씨도 좋아서 1구역부터 4구역 연합예배 때도 집안을 가득 메운 인원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구역 대심방 때도 식사를 도맡았다.

최 권사님은 교회 식당에서 16년 동안 봉사했다. 처음 8년은 봉사부와 다른 부서를 오가

며 했지만, 권사 임직 후 8년은 교회 식당에 꼭 박혀서 일했다. 교회에서 예식이 있을 때마다 나와 봉사부원들과 식사를 준비했다. 책임감이 강해서 맡은 일은 꼭 해내는 성격이라 허리가 아프면 침을 맞아 가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겨울마다 설악영은교회(현 영은설악센터)에 가서 1,200포기 김장을 했다. 그때 김장 담당이었던 김춘화 권사님이 무척 고생하셨다. 일을 잘한다는 소문이 자자한 덕분에 최 권사님은 지금도 구립경로당에서 식사 담당 일을 하신다.

이승구 목사님이 진짜 좋아요

인터뷰 한 시간 내내 미소를 띤 최 권사님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나는 우리 이승구 목사님이 되게 좋아요. 진짜 좋아요.” 거듭 강조하는 것을 들으며 깨달았다. ‘아하, 권사님은 영은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게 참으로 기쁜신 분이구나.’ 본 기자도 동의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그렇죠? 우리 담임목사님이 책도 많이 읽으시고 말씀도 잘하셔서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권사님은 복이 참 많은 분이예요. 첫 교회가 영은교회였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 평생 다니게 되었으니까요.” “맞아



최동임 권사 가족

요. 내가 복이 많아요.” 권사님이 활짝 웃으셨다.

1974년에 양평동으로 이사했고 셋방살이를 하다가 1982년에 자신의 집을 장만했고 1985년에 영은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최 권사님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384장 찬송처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것이다. 외동딸(김미희 집사)은 일곱 살 때부터 친구 따라 영은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찬양대 10년 근속상도 받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관절 수술로 직장도 그만두고 현재 회복 중이라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딸이 건강을 되찾아 사위(이병인)와 함께 교회에 다시 오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간절히 기도드린다.

영은교회와 함께 걸어온 은혜의 동행



문희교 은퇴장로

이 글은 영은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교회를 세워 오셨는지를 증언하는 기록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작은 달란트로 교회를 섬길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쌓아 온 믿음의 유산과 소중한 역사 자료들을 잘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하는 것을 남은 사명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음 세대가 지나온 믿음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기를 소망한다.

다음 세대에 남기고 싶은 믿음의 발자취

나는 1986년 영은교회에 등록했다. 당시는 허남기 담임목사님께서 부임하셔서 교회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던 때였다. 다른 교회에서 이명해 온 나는 낯선 환경 가운데서도 ‘이 교회에서 집사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부서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찬양대에서 봉사하게 됐다.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찬양과 성극 등 여러 활동을 펼치는 모습을 보며 찬양대, 금요찬양단, 성극단 등에 관심을 가졌다. 청년들과 함께 호흡하며 비전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게 됐다. 컴퓨터학교와 유스비전, 영은신문 등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사명임을 깨달았다. 교회 일에 관심이 생기며 자연스럽게 예배와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돌이켜보면 그것이 영은교회와 함께한 긴 동행의 시작이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기록

서리집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나의 관심이 예배와 행사에만 머물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누리는 교회의 모습은 앞선 세대의 기도와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인데,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무엇을 보고 교회를 기억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1996년 안수집사 임직 후부터 사료실 구축, 교회 통계 및 역사 자료 정

리, 정관 전면 개정, 홈페이지 개설 등 교회의 역사와 행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에 힘썼다. 또한 영은카페 운영과 컴퓨터학교, 노인학교, 혼례부, 유스비전, 어린이집을 신설하고 영은교회 40년사 발간 준비를 비롯해 여러 분야 일에 참여했다.

2000년 장로 임직 후, 교회의 역사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헌신했는지를 증언하는 믿음의 기록이라고 생각하며 영은교회 40년사 발간과 50주년 기념 화보집 발간 작업을 했다.

오래된 사진 한 장, 빗바랜 문서 한 장 속에도 이름 없이 총성했던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담겨 있었다. 자료를 하나씩 찾아 정리할 때마다 영은교회의 오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수많은 믿음 선배의 헌신으로 세워졌음을 다시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영은교회와 함께하면서 성전 건축과 비전센터 건축 등 교회의 중요한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는 사람의 계획과 능력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성전을 세우는 일은 결국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할 터전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영은설악동산을 설계하고 조성하는 일에도 참여했다. 교회 묘지는 단순히 육신을 모시는 장소가 아니라 성도들을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신앙의 뿌리를 보여 주는 소중한 역사라고 생각했다. 이 모든 일을 지내오면서 내가 한 일보다, 부족한 사람에게 교회를 섬길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된다.

교회 정관의 필요성과 중요성

교회 정관은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니라, 교회가 성경적 원리와 교단 헌법에 따라 건강하고 바르게 운영되도록 돕는 중요한 기준이다. 교회 정관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질서 있게 세워가고,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며 교회의 사명과 공동체를 지키는 소중한 약속이라 생각하며 정관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

장로의 직분과 본분

오랜 세월 교회를 섬기면서 나는 늘 ‘장로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라고 스스로 물었다. 장로의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책임이며, 권위를 앞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이다. 직분은 때가 되면 내려놓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할 사명은 끝나지 않는다.

나는 부족하지만, 평생 정의와 본분, 가치를 소중히 여기려고 노력했다. 교회 안에서는 헌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약속과 신의를 지키려고 노력했다. 교회가 어려움을 만날수록 사사로운 이해관계보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시무장로는 은퇴장로는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후배들에게 믿음의 본을 남기는 사명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영등포노회 노회장과 장로회장으로 섬기면서

나는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자 했다. 노회는 교회를 돕고 세우며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가는 공동체라고 믿었기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개인의 생각보다 헌법과 원칙, 정의와 질서를 소중히 여겼다. 한 번 한 약속과 신의를 지키며 목회자와 장로가 서로 존중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도록 힘썼다. **장로회** **장로서는 권위보다 섬김과 책임, 본분과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에 마음을 두었다. 장로는 무報酬로 섬기며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고, **다음 세대의 장로들이 바른 신앙과 책임을 이어가도록 힘썼다.** 부족함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으니, 이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한다.



문희교 장로 영등포노회장 취임(2018년)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었는지를 알 것 같다. 교회의 자료를 모으고 역사를 기록하며, 사진과 문서를 보존하고 제도와 시설을 정비하는 일들을 돌아보니 모두 ‘오늘의 영은교회를 잘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일’로 이어져 있었다.

우리 세대의 책임은 선배들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잘 지켜 다음 세대가 더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에게 건물과 재산만 물려주어서는 안 되며, 선배들의 눈물과 기도, 말씀 중심의 신앙, 정직한 정신과 겸손한 섬김의 이야기를 함께 전해 주어야 한다.

내가 교회 역사 보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과거

에 머무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다음 세대가 기록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 믿음 위에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은혜의 ‘동행’을 돌아보며

1986년 영은교회에 등록한 이후 어느덧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돌아보면 기쁜 일도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영은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셨으며 부족한 나에게도 교회를 섬길 기회를 주셨다.

나는 작은 달란트가 교회를 위해 사용될 때 역사 속 한 조각으로 남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앞으로 영은교회가 창립 70년을 넘어 100년을 향하여 나아갈 때도 이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나 또한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영은교회의 역사를 가능한 한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 싶다. 그것이 40년 동안 영은교회와 함께 걸어온 한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할 마지막 사명이다. “**교회의 역사는 우리가 남기는 기록이지만, 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지나온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도 기대한다.



남선교회 전국연합회(2026년)



아들(문지용) 가족과 함께

가족

충남 아산에서 태어나, 충북 청주에서 태어난 곽한희 권사를 만나 가정을 이루었다. 신앙으로 자란 아내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자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감사한 만남이었다. 아들 문지용 집사와 며느리 이현정 집사, 손주 서준, 서후와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어가고 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다.

[종교개혁 그랜드투어]

루터, 츠빙글리, 칼뱅의 숨결을 찾아서

송경란 권사

영은교회 교육문화부가 주관하는 종교개혁 그랜드투어가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독일, 스위스, 프랑스에서 진행됐다. 11박 12일 여정 동안 박대원 목사를 비롯한 28명의 성도가 14개 종교개혁 도시를 탐방했다.

이번 종교개혁 투어는 단순한 역사 탐방을 넘어 역사적 현장을 직접 다니며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뜻깊은 영적 순례의 시간이었다. 책과 사진으로만 접했던 종교개혁의 역사를 루터, 츠빙글리, 칼뱅이 걸었던 길과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개혁을 외쳤던 현장에서 직접 보니 역사가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다.

특히 루터가 활동했던 독일의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굽히지 않았던 그의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종교개혁의 정신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신앙은 사람의 권위나 형식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삶으로 지켜낸 믿음의 고백임을 느낄 수 있었다.

스위스 취리히에서 츠빙글리의 흔적을 만나며 그의 삶과 사역은 교회가 시대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말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앞에서 송경란 권사(오른쪽 3번째), 독일 비텐베르크

씀에 따라 변화해야 함을 느꼈다. 제네바에서 칼뱅의 발자취를 따라 둘러보면서 개혁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공동체를 세워 가려 했던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임을 깨달았다.

세 개혁자의 삶과 사역은 서로 달랐지만, 이들에게는 사람의 전통과 권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공통된 사명이 있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종교개혁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계속되어야 할 현재 진행형의 개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 형식과 습관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됐다.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의 기도과 헌신 위에 세워졌음을 깨달았다.

[종교개혁 그랜드투어]

무지개를 품은 영혼

양양덕 전입은퇴권사



스위스 빌트하우스 츠빙글리기념비 (양양덕 권사: 왼쪽 첫 번째)



스위스 아인제델른 초원 산책 (투어팀)



제네바 호수 제트 분수

영혼이 맑아져 돌아왔습니다
십일간의 여행이 내 마음 깊은 곳
영혼의 곡간까지 씻어주었네요

새파랗고 드높은 하늘
지금 막 면도를 끝낸 것 같은
단정하고 넓은 초원들이
한 없는 놀라움과 경이를 선물하고

아름다운 알프스 요정들이 마치
하나님 나라로 내 발걸음 인도하는 듯
우리들 마음에 선한 옷을 입혀줍니다

하나님 예수님 또 그 제자들
그 다음으로
공경하고 사랑하고픈
세 분 개혁자들과 많은 이들

죽음을 불사한 하나님 사랑과 열정
빛나간 신앙의 가르침에 대한 항거가
내 피를 조용히 끓게 만듭니다

그들의 아프디 아픈 삶을 전해듣고
우리 모두의 가슴 한켠이
안타까움에 아려옵니다

이토록 요동치는 내 마음
대변이라도 하는 듯
제네바 호수의 물길에
하늘로 힘차게 솟아 오릅니다

아름다운 무지개를 품고

[종교개혁 그랜드투어]

하나님을 만나고 목회자의 꿈을 꾸게 된 여정

이진표 (청년2부)

종교개혁 그랜드투어를 통해 독일, 스위스, 프랑스를 방문하며 종교개혁가 루터, 츠빙글리, 칼뱅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은혜로운 종교개혁지 탐방을 다녀왔다. 개혁가들의 생가와 그들의 삶이 숨 쉬었던 공간 그리고 역사의 흔적들을 눈으로 직접 마주하며, 목회자를 준비하는 나 자신의 삶과 미래의 목회를 깊이 생각하게 됐다.

치열했던 그들의 삶터 앞에서 ‘나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이번 탐방을 통해 얻은 다짐이 결코 나만의 개인적인 결단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온전한 고백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다. 또한 교회 탐방과 더불어 유럽 곳곳의 명소를 견문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넓음과 다양함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안목이 넓어지고, 한국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이 세상 전체를 품고 관심과 기도의 폭을 넓힌 뜻깊은 시간이었다.

깊이 있고 대단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신 교회와 성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무엇보다 내가 영은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목회자의 꿈을 꾸게 된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복임을 고백한다. 스위스 필라투스 산 정상에 방문했을 때 썼던 시로 소감문을 마무리한다.



필라투스산 정상에서

스위스 Mount Pilatus,

그 아득한 정점에서 겹겹이 둘러싼 알프스의 봉우리,

이 정상에서 모든 세계가 보이는 것이 아닌,

거대한 산맥으로 가로막혀

저 신비로운 장벽에 의해 그 너머를 못 보는 것에

오히려 가슴 시린 아름다움을 느낀다

보이지 않기에 더욱 광막한 저 너머의 세상,

산이 숨겨둔 무한이 이곳 필라투스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스위스 필라투스 정상에서 투어팀

2026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교육1부 교회학교 7개 부서 여름성경학교가 7월과 8월에 걸쳐 각각 진행됐다. 다음은 부서별 소감 글이다.



류석현 교사(영아부)

[영아부] 딸과 함께 한 뜻깊은 시간

영아부는 7월 11일과 12일, 양일간 ‘하나님 사랑 Hi! Hi!’라는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영아부에 입학한 딸 채은이와 함께 하는 성경학교라 더욱 특별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틀 동안 기쁘게 뛰어놀며 주님을 찬양하는 채은이와 영아부 아이들을 보며, 이 전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감사를 누릴 수 있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해주셨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신 주님의 응답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재운 교사(유아부)

[유아부] 하나님 사랑 하이! 하이!

7월 4일(토)부터 5일(주)까지 유아부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됐다. 이번 여름성경학교 대주제는 ‘하나님 사랑 하이! 하이!(Hi! Hi!)’였다. 성경학교를 진행하며 유아부 친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다. 4, 5살인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설교 중 전도사님의 질문에 열정적으로 대답하는 모습과 진심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울동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향한 아이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일하심을 느꼈다. 한 달 동안 교사들이 매일 릴레이로 기도했고 아이들은 부모님과 20일 기도 책자로 함께 기도하며 성경학교를 준비했다. 너무나 감동적인 시간이었다.



정다희 교사(유치부)

[유치부] 4주간 릴레이 기도로 준비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동안 '하나님 사랑 하이하이'라는 주제로 유치부 여름성경 학교를 진행했다. 4주 전부터 교사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릴레이 기도를 이어가며 함께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했다. 준비하는 시간부터 모든 순서가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었고, 모든 활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셨음을 고백한다. 유치부 친구들이 이번 여름성경학교에서 배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기를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배서영 (유년부)

[유년부]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유년부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용서받고 사랑하고 Go Go 대모험'이라는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했다. 첫째 날은 요나 이야기를 들었다. 둘째 날에는 일만 달란트 빚진 사람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용서를 잘하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성경학교에는 미니운동회, 코너 학습, 만들기 같이 다양한 활동도 있었다. 그중에서 나는 만들기 활동이 가장 좋았다. 부채 만들기 시간에는 성경학교 주제를 생각하며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 나만의 부채를 만들 수 있어서 좋았다.



[초등부] 용서받고 사랑하고 고고 대모험



이라현 (초등부)

7월 24일(금)부터 26일(수)까지 진행된 여름성경학교에서 공과 공부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 재미있는 만들기도 하며 예수님에 관한 많은 것을 배웠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번 여름성경학교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같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도 배웠다. 여름성경학교에서 ‘외로웠던 순간들에도 하나님이 곁에 계셨구나!’를 깨달았다.



박연서 (초등부)

이번 성경학교 때 모든 게 다 재미있었지만, 특히 물놀이장에 갔던 것과 코너 활동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물놀이장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신나게 하고 같이 간식도 먹어서 행복했다. 나는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됐다. 여름성경학교 주제는 “용서받고 사랑하고 고고 대모험”이었다. 이번 1박 3일 여름성경학교는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



[소년부] 여름보다 뜨거운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품고 왔어요!

소년부는 가평 그린캠프 유스 호스텔에서 8월 2일부터 5일까지 '용서 받Go 사랑하Go 대모험'이라는 주제로 3박 4일 동안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사랑하는 것이 용서하는 데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친구들, 선생님들과 손을 잡고 진심으로 찬양하며 기도할 때 정말 감동적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았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헌신 덕분에 즐겁고 안전하게 성경학교를 보낼 수 있었다.



정원필 (소년부)



꿈자람부 가정 심방



구현진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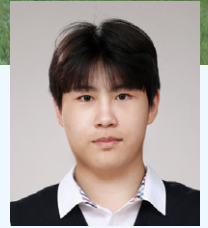
[꿈자람부] 꿈자람부 여름 사역, 은혜로 마쳐

꿈자람부 여름사역 '우리는 한 몸'이 7월 28일(화)에 시작해 8월 8일(토)에 마쳤다. '우리는 한 몸'은 꿈자람부에 속한 가정을 심방하는 사역이다. 9일 동안 17가정을 심방했다. 23명의 어린이와 부모, 또 새 친구 2명을 만나 예배드리고 교제했다. 또래 심방 기간인 7월 29일(수)에는 초등학교 4~6학년 12명의 어린이(새 친구 2명)와 함께 즐겁게 교제했다. 7월 30일(목)에는 초등학교 1~3학년 7명의 어린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서로를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풍성히 누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지며 성장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친구들과 가까이!

- 중등부 수련회를 다녀와서 -



정예준 (중등부)

나는 방학 시작부터 여름 수련회(8월 2~5일)를 기대했다. 중등부 마지막 여름 수련회였고 임원으로 서 프로그램을 직접 계획하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 그리고 친구들과 비밀리에 준비한 장기 자랑 덕분에 수련회가 기다려졌다.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 들떠있었던 것 같다.

붕 떠 있던 마음과 달리 나는 첫날 집회 시간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전도사님의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돌아보았다. 하나님은 늘 거룩하신 분이요 나는 아직 사춘기 '중딩'일 뿐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메시지가 마음을 울렸다.

특히 마지막 날 집회와 셀러브레이션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사실 집회 앞자리를 맡고 싶은 마음에 친구들과 약간의 언쟁이 있었는데, 찬양과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 어쩌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앞자리를 욕심냈는지도 모르겠다. 조금 유치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예쁘게 봐주시지 않았을까?

기도하다가 우리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서로를 안아주고 사과하고 위로했다. 친구가 "고맙다"라고 말해주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면 이렇게 따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화해의 시간은 오랫동안 이어졌다. 하나님과 가까이 그리고 친구들과 더 가까이 만나는 순간이었다. 얼굴은 눈물범벅이 되었는데 마음은 편안과 기쁨으로 꽉 차 있었다.

하나님께 가까이! 친구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중등부 마지막 여름 수련회를 오래 기억하고 싶다.



박민서 (고등부)

불구경: 더 이상의 구경은 불필요합니다

- 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와서 -

지난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3박 4일 동안 오름 비전빌리지로 수련회를 다녀왔다. 역대 고등부 수련회 중 참가 인원이 제일 적었고 장소도 작년부터는 작았지만, 고등부 친구들이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한 친구들이 눈에 띄게 많아지는 등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잘 느낄 수 있었던 수련회였다.

이번 수련회는 ‘불구경: 더 이상의 구경은 불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영락 전도사님께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배경으로 구경꾼, 도망꾼, 변명꾼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다. 설교 내용 중 전도사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사랑은 가장 으뜸가는 계명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지키기 쉬운 것, 이미 잘 지키고 있는 것만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한 번도 적당히 사랑하신 적 없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넘쳐나는 사랑을 해야 한다고 하셨다.

말씀을 들으며 그동안 사랑하는 데 있어 망설이고 실패했던 나의 지난 모습들이 떠올랐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 가장 각박했다. 고등부 부회장으로서 모든 친구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전하고자 다짐하지만, 매번 고민만 하고 마음만 졸이다 오는 나의 모습이 너무 미웠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며 실패해도 괜찮으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삶 속에서 몸과 마음으로 행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다.

설교 시간 이외에도 ‘스쿨 처치’에 대해 배우며 학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물놀이와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삶 속에서, 우리 고등부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배웠다. 마지막 집회 시간 벌떼 기도를 할 때에는 선생님들과 모든 학년 친구들이 서로의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중보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

- 더누림 여름수련회 -



홍진혁 (더누림)

더누림 여름수련회가 지난 8월 16~17일, 1박 2일간 인천 강화 금은별장에서 진행됐다. 주일 4부 예배를 마치고 출발한 성도들은 저녁 식사를 하고 차를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그동안 모이지 못했던 성도들도 한자리에 모여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며, 오랜만에 공동체의 온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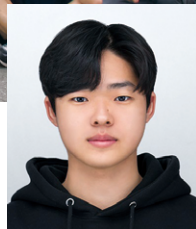
첫째 날 밤 집회는 김민식 목사님의 인도로 ‘내 인생의 쫓대’라는 주제 아래 빌립보서 3장 12~14절 말씀을 붙들고 진행됐다. 목사님께서서는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라고 고백한 대목을 짚으시며, 신앙은 이미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쫓대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임을 말씀하셨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는 권면 앞에서, 우리는 각자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었는지 조용히 돌아보았다.

둘째 날 아침 예배에서는 ‘주께 하듯’이라는 주제로 골로새서 3장 22~25절 말씀이 선포됐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내는 평범한 하루가 먼저 떠올랐다. 신앙이 결국 그 자리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만약 내가 귀중하게 여겨온 어떠한 가치들이 하나님과의 동행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정말 나에게 중요한 가치일까. 과거의 실패나 성공이 현재 나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쫓대 아래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동행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함을 은혜로 깨달았다. 이 쫓대를 향한 열정이 더누림 공동체와 영은교회 위에 오래 머물기를 기도한다.



천안동부교회 아웃리치 - 청년부 아우름팀 -



김하민(청년2부)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 진윤규 목사님, 교사 7명, 청년 49명 총 57명이 함께 천안동부교회로 아웃리치(현장 지원 활동)를 다녀왔다. 이번 아웃리치는 천안동부교회와 교회 주변 마을을 섬기며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아웃리치를 준비하며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사역지로 떠나기 전부터 함께 기도하며 준비한 것이다. 매주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찾아갈 천안동부교회와 마을, 만날 어르신들 그리고 준비하는 사역들을 하나씩 하나씩께 올려드렸다. 아웃리치를 준비한다고 하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활동 물품을 챙기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 쉽지만, 이번에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부터 준비할 수 있어 감사했다. 아직 만나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천안동부교회와 마을이 조금씩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한 마음을 품고 천안동부교회에 도착하여 3일간의 사역을 시작했다. 첫날에는 여는 예배를 시작으로 교회와 마을을 둘러보며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이미용팀 사역과 미디어팀의 전자금융사기

방지 교육(피싱방지 교육) 사역을 시작했다. 둘째 날에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저녁에는 마을 잔치를 열었다. 마지막 날에는 닫는 예배를 드리며 3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사역은 식사를 준비하고 섬기는 식사팀, 어르신들의 파마와 커트를 맡은 이미용팀, 어르신들을 사진으로 남겨드리는 장수사진팀, 혈압·혈당 측정과 마사지를 진행한 의료팀, 감사 카드와 복음 팔찌 만들기,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등을 진행하는 노인학교&미디어팀, 방충망 교체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목회실 청소 등 교회와 마을에 필요한 일을 담당하는 유지보수팀이 각각 사역을 맡아 임했다.

이번 아웃리치는 함께 모여 그곳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 같다. 우리가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할 수도, 만난 모든 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없었지만, 기도로 준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며 전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임을 믿는다.

“재능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고친다”

영은집수리봉사단, 4호 사역 마무리



집수리봉사단의 4호 사역

영은집수리봉사단이 지난 6월 27일 영등포로 한 빌라에서 제4호 집수리를 마쳤다. 이번 사역은 40대 부부와 두 자녀가 사는 오래된 골목 안 1층 주택(약 12평)에서 진행됐다. 이날 15명의 봉사단은 안방 도배, 안방 문 교체, 외벽 페인트 도색, 옥상 누수방지, 센서 교체 작업을 했다. 또한 부모님 집 통로 센서 및 화장실 타일 교체 작업 등 환경개선에도 도움을 줬다.

송경란 기자

앞으로 더 열심히 이웃을 섬겨야지

작년 9월 영은교회 옆으로 이사를 왔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 터전에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9)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삶을 생각하고 있었다. 영은집수리봉사단을 모집하던 날 남편과 자연스럽게 신청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고, 우리는 신청서에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얼마 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노부부의 집을 방문했을 때 정말이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모두의 말문이 막혔다. ‘누가 이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누가 이들을 도우러 오겠는가...’ 지금 이곳에 함께하시는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음을 느끼며 집수리 봉사의 소중함을,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박선영 성도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영은집수리봉사단’이 적힌 조끼를 맞춰 입고 노부부의 집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모습은 마치 천사들이 내려와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다. 새벽부터 시작되어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집수리 봉사가 모두의 합심 끝에 마무리되었다. 쓰레기가 한가득 트럭에 실렸고, 찌든 때가 가득했던 집은 새집으로 탈바꿈되었다. 노부부가 연신 손을 붙잡으며 감사를 표현하던 순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이웃을 섬겨야지!” 라고 다짐해 본다.



유스비전 31기 주바라기의 유럽 여행 이야기

팀에 부어 주신 사랑 김해지(팀장)

6월 30일부터 7월 28일까지 유스비전 31기 '주바라기' 팀이 무사히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아래 모든 유럽 여행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로마를 시작으로 피렌체, 인터라켄, 취리히, 파리, 프라하, 체스키, 비엔나, 잘츠부르크, 할슈타트, 뮌헨 그리고 프랑크푸르트까지 총 6개국 12개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로마 시내를 걸으며 바울이 이 언덕을 지나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에 감격하기도 했고, 스위스의 자연을, 에펠탑의



고흐의 「해바라기」와 주바라기팀, 독일 뮌헨

야경을, 오스트리아의 거대한 궁전을 볼 수 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주님께서 저희 팀에 부어 주신 사랑이 더 놀라웠습니다. 저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바라기를 위해 기도해 주신 영은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피티 궁전, 이탈리아 피렌체



벨베데레 궁전, 오스트리아 빈



얼음 동굴, 스위스 융프라우요흐

사랑의 실천 정윤희(회계)

사람들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주어졌고 그것에 감사하며 우리 주바라기가 사랑의 실천으로 한 달 동안 함께 했던 여정이었습니다. 한국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헌신하며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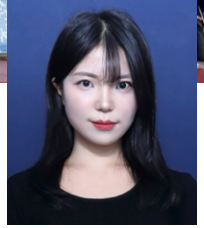
큰 도전 광채린(총무)

살아온 환경과 성격이 다른 4명이 모여 한 달을 함께한다는 건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참된 사랑과 배려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배우고 실천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럽의 멋진 풍경보다 더 가슴 깊이 남은 건 서로를 품어주는 팀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참된 비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은혜의 시간을 함께해준 우리 주바라기 팀원들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영은교회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거듭남의 경험 석지영(서기)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걱정과 불만이 가득했고,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첫발을 내딛는 순간, 제 마음은 거짓말처럼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준 언니들, 걱정과 달리 화창한 날씨로 반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깊이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이어진 큐티를 통해 믿음이 자라남을 스스로 느꼈고 처음엔 다소 버겁게 느껴졌던 한인교회 예배도 점차 찬양의 기쁨과 말씀의 은혜로 채워졌습니다. 이번 유스비전을 통해 저는

예전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을 경험했습니다.



이채연(청년1부)

LOG-IN(그리스도 안에) - 청년1부 여름수련회 -

청년 1부는 지난 8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간 인천 신덕수양관에서 총 87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 여름수련회’를 진행했다. 이번 수련회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 아래 ‘로그인(LOG-IN, 그리스도 안에)’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첫날, 청년들은 수양관으로 이동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무엇으로부터 ‘로그아웃’해야 하는지 돌아보며 묵상했다. 저녁 집회에서는 ‘로그아웃 LOG OUT’(엡 2:1~10)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빼앗은 온 세상 것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내려 놓았다. 둘째 날에는 레크리에이션, 코너 학습을 통해 공동체들과 교제했다. 이어 ‘LOG IN’(고전 6:19-20, 갈 2:20)을 주제로 열린 저녁 집회 시간에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선포하며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겠다고 결단했

다. 마지막 날에는 ‘스테이 로그드인(STAY LOGGED IN)’(요 15:1-11, 롬 12:1-2)이라는 말씀과 함께 마침 예배를 드리며 수련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수련회는 세상의 가치에 시선을 빼앗기기 쉬운 청년의 시절에 무엇을 좇으며 살아왔는지 다시 돌아보고 과감히 ‘로그아웃’하며 하나님께 ‘로그인’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둘째 날 집회 찬양 시간 때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청년이 손을 맞잡고 찬양하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 우리 청년 1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지를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청년들이 수련회가 끝난 후 일상에서도 이때의 결단과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 기도와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무엇보다 이번 수련회를 안전하고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그래도 따르렵니다 - 청년2부 여름수련회 -



이경준 (청년2부)

청년2부는 8월 13일(목)부터 15일(토)까지 2박 3일 동안 이찬양 목사님과 교사, 청년 총 90여 명이 “그래도 따르렵니다(눅 9:58)”라는 주제를 품고 철원에 있는 담터수양관에서 여름수련회를 진행했다. 2박 3일 동안 청년들은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걸어 가야 할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이찬양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

먼저, 성도와 제자는 따로 구분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제자의 삶은 특별한 영성을 지녔거나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만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런 사람들에게만 맡겨진 길도 아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제자다. 다음으로, 제자의 길은 혼자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당할 힘을 구해야 한다. 특별히 ‘나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주님의 언약을 믿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제자의 길은 공동체와 함께 걷는 길이다. 나와 함

께 예배를 드리는 저 사람의 아픔과 고민은 무엇일지 한 번이라도 물어보고, 그것을 위해 한 번이라도 기도하며,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사람의 때를 함께 기다려 줄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

나는 올해 청년부를 졸업한다. 모태신앙이 아니었던 내가 선유도로 이사 오며 친구의 소개로 2020년에 처음 영은교회에 오게 됐다. 그렇게 영은교회 청년부와 6년을 함께했다. 그 6년 동안 나는 청년들에게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매주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웃어 주고, 자신의 아픔을 나누는 그 평범함이 나를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했다.

“하나님, 너무도 귀한 청년들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품속에 보이는 하나님

구용회 선교사

- 사라왁 쿠칭 기도편지 -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요일 4:12)

1. 쿠칭에서 하나님 이야기

수요기도회에서 한동안 볼 수 없었던 아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 3월 아빠와 일찍 헤어진 후 다시 만난 아이의 얼굴에서는 이전과 다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프람 목사님은 다시 찾아온 그 아이를 말없이 품에 껴안아 주셨습니다. 아이가 예배실을 한 바퀴 돌고 올 때마다 목사님은 몇 번이고 아이를 따스하게 품었습니다. 특별하거나 화려한 표현은 아니었지만, 그 소박하고 진실한 포옹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세상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듯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는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분의 존재는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증명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특별합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의 실천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세상 속에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이 나만을 위한

시간이 아닌, 하나님을 나타내는 선교적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쿠칭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우리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수요기도회, 아빠 사진을 든 아이

2. 사역 소식

① Akar Baik(선한 뿌리) 유치원 방문: 5월 5일 BEM 교단 유치원을 찾아 교사 충원과 운영 자립을 위해 대화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별처럼 빛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② TSM 청년과의 시간: 먼 길을 오가며 수련회를 섬긴 Sen 형제를 격려하고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만나는 청년마다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③ ISCF 캠프: 6월 12~14일, 70여 명의 중·고등 학생 및 교사와 2박 3일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말씀 앞에 깨끗하고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을 깊이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④ 엠마우스 소그룹 연습과 실천: 세 한인 가정과 커리큘럼을 시연하고, 안디옥교회처럼 이웃과 김치를 나눴습니다. 교재가 잘 번역되어 현지 청년들에게 잘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⑤ 쿠칭 한인 선교사회: 6월 23일, 변경된 현지 정책을 모임을 통해 나누고 지혜를 모았습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지혜롭고 안전하게 사역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⑥ 사마라한 청년 기도모임: 6월 27일, BEM 더 웨이(The Way) 교회에서 기도모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로 서서 이 땅의 소명을 발 견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⑦ 별이와 원이 소식: 둘째 원이가 초등학교 입학 시험을 잘 마쳤고, 첫째 별이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3. 함께 기도해 주세요

① 엠마우스 프로젝트가 현지 청년들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통로가 되도록

② 함께할 전문인 멘토진이 미리 잘 준비되고 연결되도록

③ 10월 영은교회 선교팀이 복음의 깊은 은혜를 먼저 누리도록

④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의 건강과 상황을 지극히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기를



ISCF 캠프에 참여한 교사와 학생들



어머니의 날 가족사진(구용회 선교사 가족)

예배로서의 결혼예식:

『제1치리서』에서 현대 장로교회까지



이찬양 목사

『제1치리서』(The First Book of Discipline, 1560)는 16세기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직후 개혁교회의 조직과 운영 원리를 제시한 교회 개혁안으로 교리와 성례, 목회자와 장로·집사의 선출, 교회 재산과 치리, 결혼과 장례 등 교회 생활 전반을 다룬다.

『제1치리서』에 나타난 결혼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결혼은 부모의 지지와 도움 속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결혼을 결심한 남녀는 부모에게 자기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혼인을 진행하기 위한 조언과 도움을 구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새로운 가정의 형성이 기존 가정의 질서와 단절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둘째, 결혼은 비밀리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거행되어야 했다. 결혼예식은 원칙적으로 주일 설교 전에 행해졌으며, 합법적으로 성립한 혼인은 간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로 해소할 수 없었다. 이는 당시 개혁교회가 결혼을 가톨릭교회와 같이 성사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 신앙공동체 앞에서 이루어지는 공적인 신앙 행위로 이해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전통이 오늘날 한국 장로교회의 결혼예식에도 일정 부분 계승된다. 예장 통합 헌법 제5장 제3조는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로 규정하며, 혼인의 순결성과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목회자의 주례를 강조한다. 또한 결혼예식은 다른 교회예식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예배의 정신으로 거행되어야 하며, 신앙공동체의 공적인 인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스코틀랜드 초기 개혁교회와 한국 장로교회 모두 결혼을 단순한 사적 계약이 아니라 가정의 질서와 교회의 공적 증언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적 사건으로 이해한다.

이는 결혼예식을 개인적 축제나 기념의 자리, 나아가 부와 성공, 가문의 번영을 과시하는 자리로 이해하는 오늘날의 세속적 관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자녀의 결혼예식을 앞둔 교인들과 결혼예식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장로교회의 오랜 결혼 전통을 기억하며, 결혼예식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지는 영적인 예배의 자리로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책이 없는 권리의 교실, ‘기도와 연대’로 길을 찾다



최혜진A 집사
(초등학교 교사)

왜곡된 인권 교육이 남긴 그림자

약 10년 전 학교 현장에 학생 인권 교육이 의무화된 후 다소 당혹스러운 풍경을 목격했다. 제도 시행 초기, 훈육과 폭력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이들 눈높이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채 전달되면서, 정당한 훈육까지도 아이들은 ‘집해’나 ‘폭력’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었다. 인권 교육이 끝난 직후 교실에서 부모를 비아냥거리듯 ‘금 세 마리’ 노래를 부르던 저학년 아이들의 모습은 교사로서가히 충격이었다. 아이들에게 부모의 정당한 훈육은 ‘너희를 향한 사랑이자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따로 재교육을 해야 했을 정도였다.

무너진 가정, 흔들리는 교실

강산이 변한 지금, 교사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며 학생 인권 교육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오랜 시간 굴절된 채 주입된 ‘학생 인권’의 폐해는 이미 교실에 깊게 잠식했다. “훈육도 폭력이니 신고하라”라고 배운 아이들은 정당한 지도마저 거부하며 부

모와 교사를 손쉽게 경찰에 신고한다. 최근 옆 반의 한 학교 폭력 가해 학생도 자신을 훈육하려는 부모를 경찰에 신고했고, 총격받은 부모는 더 이상 자녀를 교육하지 못하고 손을 놓아버렸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기도 했다. 이처럼 가정의 기능이 마비되어 통제력을 잃은 아이들의 폭력성은 고스란히 학교 교실로 흘러들어온다.

지금 교실 속 아이들은 수업을 방해하거나 잘못을 지적받아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교사가 아이를 훈계하면 힘을 실어주는커녕 내 아이가 지적당한 것에만 서운해하며 날을 세우는 학부모들의 태도 역시 오늘날 교단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요인이다.

상처받은 부모들, 그 뒤에 숨은 아이들

작년 우리 반 아동 중 많은 아이가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미처 추스르지 못한 갈등과 상처를 안은 일부 학부모들은

사사건건 학교에 말도 안 되는 민원을 제기하곤 했다. 부모의 거친 행동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니 그러지 말라는 교사의 진심 어린 조언에도 “내가 상처를 주면 내가 치료하겠다”라며 교사의 교육적 권위를 철저히 무시했다. 교사를 교육자가 아닌 감정 노동자로 여기는 현실 속에서 학교를 그만둬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처받은 아이들 뒤에는 더 깊은 상처를 안고 방어벽을 친 부모들이 있음을 깨달았기에, 무너진 교단을 타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걸음

작년의 어려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올해는 학기 초 바쁜 와중에도 한 달간 시간을 내어 모든 부모와 심층 상담을 진행했다. ‘우리는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함께 달리는 원팀(One Team)’이라고 부모들을 설득하며 따뜻하게 다독이자, 학부모들도 마음을 열고 교사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사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버티게 한 것은 다름 아닌 교회 중보기도 팀의 간절한 기도였다.

교사의 마음을 알아주는 믿음의 가정들이 함께 기도로 응원해 주면서 우리 반 분위기는 눈에 띄게 좋아졌고, 작년의 상처도 깊이 치유 받고 있다. 돌이켜보면 왜곡된 인권 교육 속에서 상처받고 갈등



하는 크리스천 아이들도 많다. 기독교 교사인 내가 먼저 바로 서서 그 아이들을 영적으로 돕고 연대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가정에서 실천할 세 가지 교육 지침

교권이 무너진 교실에서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올바르게 자라야 할 아이들 자신이다. 이 제라도 학교와 가정이 방어벽을 허물고 협력하며, 기도 안에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정에서 부모님이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교육 지침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권리’를 말하기 전 반드시 ‘책임과 배려’를 먼저 가르쳐야 한다. 둘째, 아이에게 ‘안전한 실패와 실수의 교육적 기회’를 선물하자. 학교에서 작은 갈등을 겪었을 때 스스로 대면하고 책임지며 회복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셋째, **아이 앞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하자.**

권리와 책임이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는 ‘진정한 교육’의 회복을 위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한다.

신청문의

| 이수일 안수집사 010-4874-7247



2026년 하반기 장년신앙교육 개설강좌

신앙의 깊이에 열정을 더하다

개강 | 2026년 9월 15일 (화)

종강 | 2026년 11월 17일 (화)

강의 기간 및 방식 | 6~8주 / 현장 & 동영상 녹화 강의

신청방법 | 2026년 8월 30일(주일) ~ 9월 13일(주일)
1층 로비 신청데스크, 홈페이지, 쿠팡코드

주제	강의명	강사
중보기도	중보기도자학교	이승구 담임목사 장미애 목사
암송	꼭! 마음에 새기는 말씀	김민식 목사
교리	사도신경	한진구 목사
문화	빌 하이벨스와 함께하는 독서산책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누구인가?"	박대원 목사
역사	한국교회 역사탐방(공주)	정성훈 목사
구약통독2	구약의 숲 플러스	신요한 목사
교회	현대교회 트렌드	안교성 교수 <장신대>
전도	국제전도폭발훈련	박대원 목사 한진구 목사

교회를 섬기는 분들

원 로 목사 | 허남기

담 임 목사 | 이승구

부 목 사 | 최광주 박대원 정성훈 한진구 신요한 김민식
이찬양 장미애 진윤규

전 도 사 | 김영락 김찬영 손예지

교육전도사 | 나진희 박선민 정희수 한수민 전성수 임현창

파송선교사 | 구용희 백현이

협 동 목사 | 소병찬 김규리

찾아오시는 길



영은교회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61 / 02-2676-7171



예배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본당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00	
	4부	오후 1:30	
오후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8:30	
화요직장인예배		오전 11:40	
모임 시간 안내	젊은세대 더누림	오후 3:00	
	젊은부부 어울림 1부	오후 12:10	1층 어린이집
	젊은부부 어울림 2부	오후 3:00	2층 세미나1실

교회학교 예배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15개월-3세	1층 영아부실
유아부	4-5세	2층 유아부실
유치부	6-7세	2층 유치부실
유년부	초등 1-2학년	5층 유년부실
초등부	초등 3-4학년	5층 초등부실
소년부	초등 5-6학년	5층 소년부실
꿈자람부	4-13세	2층 유치부실
중등부	중학생	오전 11:00
고등부	고등학생	오전 9:00
청년부	34세 미만 청년	오후 1:30